

‘이다’가 통사적 접사인가?*

이 건 수
(경희대학교)

국문초록

한국어 연구에서 ‘이다’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다. 뚜렷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 ‘이다’가 형태, 통사, 음운 등 각 층에 걸쳐 특이한 행태를 보이는 탓에 지정사, 체언의 활용어미, 계사, 동사, 의존 형용사, 어휘적 접사, 통사적 접사, 접어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이다’ 구문에 대한 분석이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들이라며 시정곤(2006)이 제시한 조건들을 기준으로 삼아 ‘이다’가 소절을 보충어로 택하는 비대격 동사라고 하는 이건수(2002)의 분석이 ‘이다’를 하나의 독립적 용언, 즉 동사라고 하는 엄정호(1989, 1993, 2000) 보다도 ‘이다’를 통사부에서 도입되어 선행어와 하나의 동사를 형성하는 통사적 접사라고 하는 시정곤(1993, 1994, 1995) 보다도 오히려 더 설명적 타당성을 갖춘 분석임을 논의한다. 특히, ‘이다’에 대한 대부분의 분석들이 의존하고 있는 ‘이다’의 선행어의 범주가 명사 또는 명사구라는 가정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는데 논의를 집중하는 하는 한편 시정곤(1993, 1994, 1995)의 분석은 진정한 의미에서 시정곤(2006)이 제시한 기본조건들 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분석임을 논의한다. 아울러, 이건수(2002)의 가정은 한국어 연구에서 또 다른 논쟁거리인 ‘하다’ 구문중 상태를 나타내는 ‘하다’의 경우에도 평행하게 적용될 수 있음도 논의한다.

* 본 논문은 2005년도 경희대학교 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임.

주제어

‘이다’, ‘이다’ 구문, 비대격 동사, 절병합, 통사적 접사, 상태성 ‘하다’, 상태성 ‘하다’ 구문

1. 들어가기

대체로 명사(구)를¹⁾ 선행어로 하여 문장의 서술어를 형성하는 ‘이다’는 한국어 연구에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다. 뚜렷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 ‘이다’가 형태, 통사, 음운 각 층에 걸쳐 특이한 행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형용사의 수식범위는 후행하는 명사에 국한되는데 선행어 앞에 형용사가 나타날 수 있어 ‘이다’를 독자적인 술어처럼 보이게 하는가 하면, 선행어와의 사이에 격표지는 물론 특수격 표지도 부사도 허용되지 않아 선행어와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듯 보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다’는 단어경계가 아닌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구개음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선행어에 부착된 접사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부정문에서는 단어처럼 보이는 ‘아니다’와 대립하고 선행어에 주격조사 ‘-이/-가’가 부착될 수 있어 ‘이다’는 다시 독자적인 단어처럼 보이는 등 특이한 행태를 지녔다.

이러한 ‘이다’는 최현배(1937)에서 잡음씨(지정사)로 분석된 이래 서술격 조사, 격어미, 체언의 활용어미, 계사, 동사, 의존 형용사, 어휘적 접사, 통사적 접사, 접어 등 다양하게 분석되어 왔으며, 필자도 이견수(2002)에서 ‘이다’를 소절(small clause)을 보충어로 택하는 비대격 서술어(unaccusative predicate)임을²⁾ 주장한 바 있다. 그간의 분석들은 다양하기는 하지만 크게 ‘이다’를

-
- 1) 명사 이외의 범주들도 선행요소가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논의들을 따라 일단은 명사(구)라 지칭한다.
 - 2) 이견수(2002)는 관계문법(Relational Grammar)의 틀 안에서 제안된 분석으로 관계문법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함께 묶어 서술어로 분석한다. 동사관계문법에 대해서는 Perlmutter & Postal(1983, 1984) 등을 참조하라.

용언, 즉 하나의 단어로 보려는 견해와 선행어에 의존적인 요소로 보려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엄정호(1989, 1993)는 ‘이다’가 하나의 독립된 용언이라는 주장으로 전자에 속하는 견해이고, 시정곤(1993, 1994, 1995)은 ‘이다’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통사부에서 도입되는 통사적 접사라는 주장으로 후자의 견해에 속하는데, 시정곤(2006: 62)은 ‘이다’에 대한 분석이 이론적 설명력과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분석이 그러한 것임을 주장한다.

(1) 가. ‘이다’ 구문이 갖고 있는 음운, 형태, 통사적 특성들을 이론적으로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왜 ‘-이-’의 선행 명사구에는 격표지가 나타날 수 없는가?
- ② 왜 ‘-이-’와 선행 명사구 사이에 어떠한 요소도 삽입될 수 없는가?
- ③ 왜 ‘-이-’는 구개음화의 환경이 되는가?
- ④ 왜 ‘-이-’는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 생략이 가능한가?

나. 긍정문(이다)와 부정문(아니다)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이다’ 구문과 같은 문법적 양상을 보이는 ‘답다, 같다’ 구문을 아울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다’가 독립적인 단어로 소절을 보충어로 택하는 비대격 서술어임을 제안한 바 있는 필자로서는 본고를 통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하나는 시정곤(1993, 1994, 1995)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이 제시한 기본 조건들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함은 물론 그 분석에도 문제가 있는 반면에 이견수(2002)가 오히려 더 설명력 있는 분석임을 보이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다’는 통사적 접사가 아님은 물론 독립적인 용언이기는 하지만 엄정호(1989, 1993, 2000)의 의미에서의 용언이 아니라 소절을 보충어로 택하는 비대격 서술어임을 재확인하려는 것이다.

2장에서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엄정호(1989), 시정곤(1993)과 이견수(2002)의 구조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1)의 기본조건들에 비추어 엄정호(1989, 1993)와 시정곤(1993, 1994, 1995) 보다 이견수(2002)가 보다 더 타당성과 설명력을 갖춘 분석임을 논의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5장에서 논의를 마무리한다.

2. 용언설, 통사적 접사설, 비대격 동사설

‘이다’가 통사부에서 도입되는 통사적 접사라는 시정곤(1993)은 ‘이다’가 독립된 용언이라는 엄정호(1989)의 주장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출발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견수(2002)는 ‘이다’가 독립적인 단어라는 주장에서는 엄정호(1989)와 같지만 비대격 서술어로 보충어를 소절로 택한다는 주장에서는 엄정호(1989)와 전혀 다른 견해이다. 본고는 이들 세 주장이 시정곤(2006)이 제시한 기본조건들을 얼마만큼 만족시키는지 비교하여 그 타당성과 설명력을 평가하려는 논의이다. 따라서,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각 분석에서 제시된 ‘이다’ 구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본다. 3장에서의 논의방식에 맞추어 엄정호(1989), 시정곤(1993), 이견수(2002)의 순으로 살펴본다.

2.1 엄정호(1989)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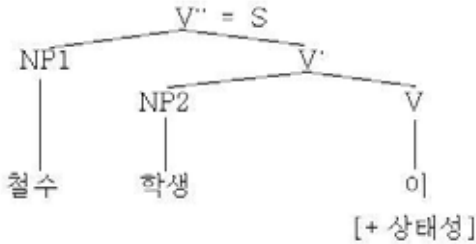
‘이다’ 구문에서 ‘이다’의 선행어와 ‘이다’의 연쇄 앞에 관형어가 함께 쓰일 수 있다.

(2) 가. 철수가 똑똑한 학생이다.

나. *철수가 {똑똑히, 똑똑하게} 학생이다.

(2)에서와 같이 부사가 아니라 관형어만이 선행어와 ‘이다’의 연쇄를 수식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은 피수식 대상인 ‘선행어-이다’가 용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용언만이 서술어가 될 수 있는데 관형어의 수식범위는 ‘이다’에 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선행어-이다’는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엄정호(1989: 112)는 ‘이다’ 구문의 구조를 (3)과 같이 제시한다.

(3)



그러므로, 엄정호(1989)에 의하면, ‘이다’는 선행명사를 논항으로 하여 동사구(VP)를 이루는 두 자리 서술어이며 ‘이다’ 구문은 일종의 주격중출문의 구조라는 것이다.

2.1 시정곤(1993)의 구조

한국어의 문법을 설명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휘부에서 부착되는 접사와는 달리 통사부에서 구와 결합하여 새로운 구를 만들어 내는 통사적 접사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이’는 ‘답, 갈, 히’와 더불어 통사적 접사라는 시정곤(1992)의 주장에 근거하여 시정곤(1993)은 ‘이다’ 구문의 D-구조와 S-구조를 (4)와 같이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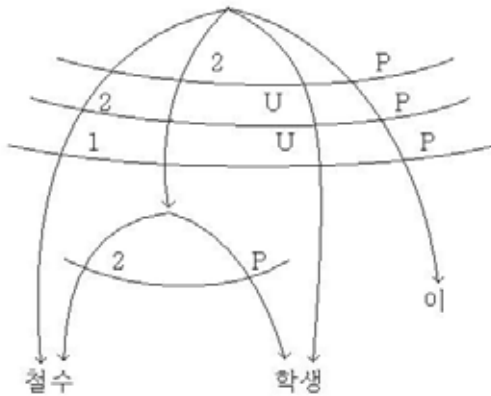
- (4) 가. 철수는 [[[학생]_N]_{NP} 이]_V]_{VP}다
 나. 철수는 [[[t_i]_N] [학생_i]_V]_{VP}다

시정곤(1993: 144)에 의하면, ‘이’는 의미적으로도, 형태적으로도 의존성을 지니는 의존형태소이어서 [-FF(Free Form)] 자질을 지니는 반면에 어간인 ‘학생’은 독립적인 형태소로 [+FF] 자질을 지니기 때문에 선행 핵인 ‘학생’의 이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정곤(1993)은 ‘이’가 어휘부에 접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통사부에서 도입되어 통사적 단어인 ‘학생이’를 만들어 내는 통사적 접사이며 ‘학생이’라는 연쇄는 동사라는 주장이다.

2.2 이건수(2002)의 구조

이건수(2002)는 ‘이다’가 선행어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어로 일종의 소절을 보충어로 택하는 비대격 서술어임을 보이면서 ‘이다’구문의 구조를 (5)와 같이 제안한다.

(5)³⁾⁴⁾



이건수(2003: 171-2)에 의하면, ‘이다’는 비대격 서술어로 최초의 층에서는5) 소절인 [철수가 학생]을 보충어로 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5)에서 ‘학생’은 내포절의 서술어이고, ‘이다’는 모문의 서술어로 그 둘 사이에는 어떠한 문법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층에서 절별

3) 관계문법에서 주어, 직접목적어, 서술어 등은 편의상 ‘1’, ‘2’, ‘P’ 등으로 표시하며, U는 병합술어(Union Predicate)를 말한다.

4) 관계문법에 익숙하지 못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5)의 구조를 생성문법의 틀로 나타낸다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D-구조, S-구조 그리고 일종의 재구조화 규칙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i) [e [[[철수]NP [학생]NP]SC [이다]V]]VP

ii) [[철수]NP [ti] [[학생이다]]VP

5)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최초의 층(initial stratum), 최종의 층(final stratum) 등은 생성문법에서의 D-구조와 S-구조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5)의 구조와 문법관계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합(Clause Union)이 일어나⁶⁾ ‘학생’이 모문의 서술어 ‘이다’와 결합하여 병합서술어를 형성하게 되고, 소절의 보충어인 ‘철수’는 병합된 절의 직접목적어 관계로 인상되는데 최종의 층에는 주어가 존재해야 한다는 범언어적 제약(The Final I Law)⁷⁾ 탓에 비대격 승진(Unaccusative Advancement)하게 되어 최종의 주어 관계를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철수’는 문장의 주어, ‘학생’과 ‘이다’의 연쇄는 문장의 서술어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3. ‘이다’가 통사적 접사인가?

본고에서는 ‘이다’ 구문에 대한 분석이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으로 시정곤(2006)이 제시한 조건들을 기준으로 하여 엄정호(1989)의 용언설, 시정곤(1993)의 통사적 접사설과 이진수(2002)의 비대격 서술어설의 순서로 비교하여 평가한다. 먼저 각 조건별로 엄정호(1989)와 시정곤(1993)이 얼마나 설명적 타당성을 갖춘 분석들인가와 문제점들을 논의한 후 이진수(2002)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상이한 문법이론에 근거한 분석들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탓에 이론적 측면 보다는 개념적 그리고/또는 경험적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함을 밝혀둔다.

3.1 격표지 문제

‘-이다’ 구문의 대표적인 특이현상은 선행어에 격표지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6) 가. 철수가 학생이다.

나. *철수가 학생{이/을}이다.

6) 절병합이란 최초의 층에서 복문구조를 갖는 문장이 단문의 구조로 변하는 언어현상에 대한 관계문법에서의 설명이다. 절병합에 대해서는 Aissen & Perlmutter(1983)를 참조하라.

7) 생성문법에서의 확대투사원리에 해당한다.

그러면 왜 ‘이다’의 선행 명사구에는 격표지가 붙을 수 없는가? 엄정호(1993, 2000)는 격표지는 동사의 의미에 영향을 받으며 동사가 [+상태성] 또는 [-행위성]의 의미를 지닐 때 VP 밑의 명사구에 기준격인 주격 ‘이/가’가 할당된다는 Kang(1987)과 Kim(1990)을 따른다면 ‘이다’의 선행 명사구에는 주격 ‘이/가’가 할당되지만 주격표지가 ‘이’밖에 없었던 중세어에서 성조까지 거성으로 일치하는 ‘이다’의 ‘이’와 주격표지인 ‘이’는 쉽게 축약되거나 하나가 탈락되었을 것이고, ‘아니’를 제외한 어떤 요소도 선행 명사구와 ‘이다’ 사이에 올 수 없다는 ‘이다’의 특성 때문에 새로 주격표지 형식으로 ‘가’가 나타났어도 주격표지의 탈락이나 축약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반면에, 시정곤(1993, 1994, 1995)은 통사적 접사인 ‘-이’가 [-FF] 자질을 가져 [+FF] 자질을 가진 선행 핵 ‘학생’을 유도하여 ‘학생-이’가 한 단어가 되는 한편 한국어에서 격부여는 S-구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선행어와 ‘이다’ 사이에 격표지가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6)에서 ‘학생’은 어간이고 ‘이’는 어간에 붙는 접사로 어간에 격표지가 부착될 수 없기 때문에 선행어와 ‘이다’ 사이에 격표지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정곤(2006:63)은 더 나아가 핵이동에 의한 설명은 격표지 문제뿐 아니라 ‘[철수가 [착한 학생]이다]’와 같이 ‘학생이다’의 구성이 왜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가도, ‘아니다’ 구문에서는 왜 선행 명사구에 격표지가 실현될 수 있는가도⁸⁾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관형어의 수식문제에 관해서는 엄정호(1989)에서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엄정호의 설명은 통시적으로 검증되기 전에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설령 그 추측이 옳바르다 해도 ‘철수’와 ‘학생’에 부착된 주격표지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 같은 주격표지라면 ‘철수’와 ‘학생’의 기능은 같은 것일 터이므로 두 명사구 위치를 바꾸어도 같은 의미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 (7) 가. 철수가 학생이다.
나. *?학생이 철수이다.

8) ‘이다’의 부정문에 대해서는 3.6에서 논의한다.

다. 그 학생이 철수이다.

(8) 가. 고래가 포유류이다.

나. *포유류는 고래이다.

(7가)는 ‘철수’의 속성 중의 하나가 ‘학생’이라는 설명인데 반해 (7나)는 ‘학생’의 속성이 ‘철수’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7가)는 한 명의 학생이, (7나)는 학생 전체가 전제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7나)에 한정적 의미의 ‘그’가 더 해지면 한 명의 학생에 대한 설명이 되어 문법적인 문장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7가)와 (7다)가 동일한 문장이 아님은 분명하다. (8)의 예들은 ‘이다’의 선행어가 주어에 대한 설명관계에 있음을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 ‘포유류’는 ‘고래’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고래’가 ‘포유류’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없다. 그래서 (8나)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다’의 선행 명사구가 주어라는 기능을 동일하게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설사 선행명사구의 격표지가 축약 또는 탈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격표지는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격이론 상 어떤 명사구에 추상격이 할당되었지만 형태적으로는 실현되지 않을 수 있음을 들어 양정석(2001)은 선행 명사구에 주격이 아니라 부정격이 할당된 것임을 논의한다. 이에 대해 시정곤(2006: 64)은 ‘아니다’ 구문에서는 같은 자리에 격표지가 실현될 수 있으므로 왜 ‘이다’ 앞에서만 부정격이 실현되어야 하는가가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부정격 논의를 부정한다. 시정곤(2006)의 반론에 덧붙인다면, 부정격이 어떤 기능의 격인지 또 범언어적으로 부정격이라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부정격 논의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정석(2001)은 (9)와 같은 문장에서 시정곤(1993)의 핵 이동의 제약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9) [[우리가 그때 주목했던 것은 [[CP[모든 현상이 [[다른 모든 현상과 t]? t]VP t]IP t]CP t]VP t]IP 상관적이었음이었다]CP

(9)의 구조에서 명사구들은 내부의 CP를 넘어가지 못하는데, ‘상관적-’과 같은 형태는 내부 CP의 경계를 벗어나 이동하므로 문제라는 것이 양정석(2001)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정곤(2006: 65)은 핵이동은 XP이동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의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본다면서 문제는 핵이동에 의한 자신의 설명이 일반이론의 이동규칙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보다는 과연 한국어 문법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라는 점이라면서 자신의 분석이 여전히 설득력 있는 설명임을 주장한다.

물론, 양정석(2001)의 지적대로 이동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한국어 현상에 맞는 새로운 이동이론을 만들면 되는 것일 수 있다는 시정곤(2006: 주4)의 주장을 용인할 수는 있을 것이다.⁹⁾ 그러나 문제는, 핵이동 가정에 의하면, (9)에서 ‘상관적이었음이었다’가 하나의 통사적 단어로 그 범주는 동사라는 것인데, 시제표지인 ‘었’이 하나의 동사에 두 개 이상 부착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범언어적으로 하나의 동사에는 하나의 시제만 적용되는데, 이는 하나의 동작 또는 사건이 여러 시제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동방법의 문제를 떠나 시정곤(1993, 1993, 1995)의 분석은 (9)와 같은 예에서 시제형태소가 반복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해결하기 전에는 타당성은 물론 설명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양정석(2001)에 대한 시정곤(2006)의 반박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왜 ‘이다’의 선행요소에 격표지가 부착될 수 없는가에 대해 엄정호(1989, 1993)도 시정곤(1993, 1994, 1995, 2006)도 타당성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함을 보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대부분의 논의들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엄정호(1989)와 시정곤(1993)의 주장이 ‘이다’의 선행어가 명사라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명사구 이외의 다른 범주의 어구도 ‘이다’의 선행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9)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곤(2006:주5)는 [착한 학생]_{NP}라는 구조에서조차도 ‘학생’이 이동했다면, 수식어를 놓아두고 피수식어가 이동한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이동의 이론과는 동떨어진 경우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동 후에 흔적을 삭제하여 구조를 변형시키거나 나중에 흔적을 복구하여 의미해석을 시도하는 방법들이 상정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10) 가. 철수가 합격한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이다.
나. 철수가 떠난 지가 오래이다.
다. 범인이 잡힌 것은 지하철역에서이다.
- (11) 가. 철수가 합격한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니다.
나. 철수가 떠난 지가 오래가 아니다.
다. 범인이 잡힌 것은 지하철역에서가 아니다.

범주구분에 있어서 의미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의미적으로 모든 어구의 구성으로 보든 (10)에서 밑줄 그은 부분들은 부사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엄정호(1989: 120-2)는 부사구라면 선행어가 ‘이다’의 논항이 될 자격이 없어 ‘이다’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다’를 수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뿐더러 부정문이 형성될 경우 (11)에서처럼 밑줄 그은 부분에 전형적으로 주격표지 ‘이/가’가 통합되고, 부사구가 주격표지와 통합되는 경우가 이 환경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사실로 보아 임시로 범주를 전환하여 명사구의 자격으로 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엄정호의 그런 주장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10)에서 밑줄 그은 부분들이 논항이 되기 위해 명사로 전환된 것들이라면 논항으로서 의미역을 할당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시정곤(1995: 428)도 선행명사구의 의미역은 논항구조를 지니는 ‘이’로부터 배당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선행어의 의미역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논의가 가능하다.) 의미역 이론상 어떤 동사가 논항을 택한다면 논항에 의미적 제약은 물론 범주유형에 대한 제약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양정석(2001:360-1)은 ‘이다’ 구문에서 앞의 명사구는 대상역(Theme)을 뒤의 명사구는 비교기준으로서 기준대상역(Reference Object)를 지님을 논의하지만, ‘철수가 학생이다’와 같은 소위 분류문에서 (남기심(1986) 참조) 두 개의 명사구가 동일관계에 있다는 전제 아래 두 번째 명사구가 지니는 의미역에 대한 논의이다. 그렇다면, (10)에서와 같이 명사구로 전환된 부사구들이 갖는 의미역은 당연히 지시대상역이 아니라 이유(Reason), 기간(Duration), 장소(Location), 그리고 ‘철수가 매우 적극적이다’도 가능하므로, 성격(Character)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¹⁰⁾ 그러나 하나의 동사로부터 논항이 할당받을 수 있는 의미역이 그렇게 다양할 수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역으로 말하면, 할당받을 수 있는 의미역이 다양하다는 것은 (10)에서 밑줄 그은 부분들이 논항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논항이라면 의미역뿐만이 아니라 (비록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격도 부여받아야 할 것인데 과연 부사구(후치사구를 포함한 것임), 형용사구(‘철수가 매우 적극적이다’의 경우임) 등에도 의미역과 격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다’의 선행어가 명사구라고 가정하는 한 격표지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¹¹⁾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주의 어구들이 ‘이다’의 선행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시정곤(1993)에서의 문제를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이 있다. 시정곤(1993: 147)은 ‘이다’의 ‘이’가 통사적 접사로 어간 형성접미사(용언화 접미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체로 (어휘적) 접미사들은 어기를 취함에 있어 범주적 제약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정곤(1993)을 따르면 ‘이다’는 명사구는 물론 부사구, 형용사구도 동사로 전환시킨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휘적 접미사와는 다른 통사적 접미사로 그 기능이 어간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특정의 접미사만 그렇게 다양한 어기를 취할 수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 또한 ‘이다’의 선행요소가 명사라는 잘못된 가정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엄정호(1989, 1993)와 시정곤(1994, 1994, 1995, 2006)과는 달리 이진수(2002)에서는 ‘이다’의 선행어에 격표지가 부착될 수 없는 이유는 (10)에서와 같이 명사구 이외의 범주들도 ‘이다’의 선행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진수(2002: 167)는 ‘철수가 학생이다’와 같은 전형적인 ‘이다’ 구문의 예는 물론 (10)의 예들도 ‘이다’를 제외하면 앞의 요소들이 [XP YP]의 구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의미적으로 [XP]는 주제 (Topic)이고 [YP]는 주제에 대한 설명(Comment)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10) 이들 의미역의 명칭은 편의상 붙인 것이다.

11) 시정곤(1993, 1994, 1995)에서의 격표지 문제와 관련한 이선웅(2000)과 남길임(2004)의 비판은 본고의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논의하지 않는다 그들의 비판과 시정곤의 반박은 시정곤(2006)을 참조하라.

그 이유는 주체와 설명의 관계는 전형적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이기 때문이다(Brown & Miller(1980)). 따라서, ‘이다’를 제외한 부분을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는 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제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소절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수(2002: 168)는 한국어에는 서술어가 절의 마지막 자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제약에 기대어 ‘이다’를 제외한 부분인 [XP YP]에서 XP와 YP의 위치가 바뀌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됨을 보이면서 [XP YP] 부분이 절의 구조를 갖고 있음을 주장한다.

- (12) 가. *[학생 철수가]이다.
- 나. *[오늘까지 원서마감이]이다.
- 다. *[적극적 철수가]이다.

아울러, [XP YP]가 소절구조를 이룬다는 것은 ‘이다’와 [XP YP] 부분으로 별개의 통사적 단위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건수(2002: 167)는 대등접속현상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다.

- (13) 가. [철수는 의사](이고), [순이는 간호사]이다.
- 나. [철수는 소극적](이고),[순이는 적극적]이다.

위의 예들은 ‘이다’ 구문의 대등접속구문에서 앞부분의 ‘이다’가 생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철수는 배를 (먹고), 순이는 사과를 먹었다’에서와 대등접속구문에서 반복되는 동사는 생략될 수 있으므로, 대등접속구문에서 ‘이다’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은 ‘이다’가 독립적인 동사임은 물론 ‘이다’의 앞부분인 [XP YP]도 통사적 단위, 즉 소절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²⁾

그러면 이제 이건수(2002)는 왜 ‘이다’의 선행어에 격표지가 부착될 수 없는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보자. 앞의 (5)의 구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

12) ‘이다’ 구문이 대체로 ‘이다’가 절단된 체 ‘철수는 학생’, ‘원서 마감은 내일까지’ 처럼 쓰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이다’의 앞 부분이 통사적 단위를 이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절병합과 비대격 승진의 결과 [XP]는 문장의 주어가 되고 [YP]는 ‘이다’와 결합하여 구문의 서술어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다’의 선행어는 내포문의 서술어이기 때문에 격표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절병합으로 인해 ‘이다’와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어를 형성하기 때문에 더더욱 선행어와 ‘이다’ 사이에 격표지는 물론 부사어도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이 이진수(2002)의 설명이다. 더 나아가, 이진수(2002)의 분석이 함축하는 바는 ‘이다’ 구문은 ‘주어-목적어-술어’의 어순(SOV)을 가진 언어이면서 교착어인 한국어에서 서술어가 보충어로 절을 택할 때 형성되는 전형적인 구조이며, ‘이다’의 특이한 행태는 ‘이다’에 뚜렷한 의미가 없는 탓에 내포절의 서술어와 모문의 서술어인 ‘이다’와의 결합체의 의미가 마치 선행어만이 갖는 의미처럼 보이는 데에 연유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진수(2002)의 분석은 왜 ‘이다’의 선행어에는 격표지가 나타날 수 없는가에 대해 엄정호와 시정곤과는 달리 구조적인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따라서, 엄정호(1989, 1993)는 물론 시정곤(1993, 1994, 1995, 2006)과 비교하여 이진수(2002)가 시정곤(2006)이 제시한 첫 번째 기본적인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는 보다 더 설명력 있는 타당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3.2 삽입 불가능 문제

‘이다’ 구문에서 관찰할 수 있는 두 번째 특이한 행태는 선행어와의 사이에 부사어는 물론 어떠한 요소도 삽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14) 가. *철수가 학생 정말로 이다.
 나. *철수가 학생 지금 이다.
 다. *철수가 학생-/은/도/과/조차/마저-이다.

이와 같은 삽입 불가능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지만 ‘이다’가 독립된 동사로 선행어를 논항으로 택하여 동사구를 구성한다는 엄정호(1989, 1993, 2000)의 분석에서는 (14)의 예들이 비문법적인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명사구를 포함한 동사구에는 (15)에서와 같이 명

사구와 동사 사이에 부사구가 삽입될 수 있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16)에서와 같이 선행어와 ‘이다’ 사이에 삽입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다’가 선행어를 논항으로 택하는 동사라고 주장하는 한 엄정호(1989, 1993)는 부사어의 삽입 불가능의 문제는 물론 (16)에서의 몇몇 특수격 표지들의 삽입 문제도 설명할 수 없다.

- (15) 가. 철수가 밥을 빨리 먹었다.
나. 철수가 장동건과 많이 비슷하다.
- (16) 가. 참석한 사람은 철수뿐이다.
나. 시험범위는 3장만이다.
다. 기회는 오늘뿐만이다.

반면에, 시정곤(1993, 1994, 1995)에서는 (14)에서와 같은 부사어의 삽입 불가능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어간과 접사 사이에는 부사어는 물론 그 어떤 요소도 삽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쉽게 답할 수 있다. 덧붙여, 시정곤(1993)에서는 부사어의 삽입 불가능 현상이 ‘이’를 통사적 접사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됨을 주장한다. 그러나 (16)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가? ‘만, 뿐, 들’ 등과 같은 특수격 표지는 삽입이 가능하므로 시정곤(1993)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김의수(2003)와 최규수(2003)의 비판에 대해 시정곤(2006: 68-9)은 특수격 표지의 삽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시정곤(1993)에서의 핵심은 ‘이다’가 본용언이라면 다른 용언이 그러하듯이 선행 성분과의 사이에 수식어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다’는 본용언과 구분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지, 삽입 불가능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만, 뿐, 들’과 같은 특수격 표지의 삽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를 통사적 접사로 볼 수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될뿐더러, 시정곤의 반박은 오히려 시정곤(2006) 자신이 핵이동이라는 방법으로는 (16)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정곤(1993, 1994, 1995) 역시 엄정호(1989, 1993)와 더불어 시정곤

(2006)이 제시한 두 번째 조건인 왜 ‘이다’와 선행 명사구 사이에는 어떠한 요소도 삽입될 수 없는가에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진수(2002:174)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16)에서와 같이 삽입될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음을 보이면서, 허용되는 요소들이 모두 의미적으로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뿐, 만’ 등과 같이 범위를 제약하는 요소들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진수(2002)는 이들 요소는 선행어에 부착되는 것이 아니라 보충어인 내포절이 나타내는 내용의 범위를 제약하기 위해 내포절에 부착된 것이라 설명한다.

논의 한 바와 같이, 선행 명사구와 ‘이’ 사이에 삽입 불가능의 문제에 대해 엄정호(1989, 1993)는 아무런 설명도 제공하지 못하고, 시정곤(1993, 1994, 1995)은 부분적인 설명 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비추어, 이진수(2002)는 왜 부사어가 허용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왜 부사어와는 달리 몇몇 특수격 조사들은 허용되는가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시정곤(2006)이 제시한 두 번째 기준도 충분히 만족시키는 설명력과 타당성을 갖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3.3 구개음화현상의 문제

구개음화는 단어경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형태소 경계에서는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다’ 구문에서 선행어와 ‘이다’의 연쇄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17) 가. 이것은 밭이다[바치다].

나. 밭이랑[반니랑/*바치랑]에 씨를 뿌렸다.

다. 할아버지가 밭 일구고[반 일구고/*바 칠구고] 계셨다.

구개음화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17)에서와 같이 ‘이’가 구개음화의 촉발자임으로 ‘이다’를 형태음소론적으로는 단어가 아님을 인정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엄정호(1993, 2000)는 오미라(1991)를 따라 ‘이다’는 통사론적으로는 하나의 단어이지만 형태론적으로는 의존성을 띤 접어(clitic)라고 한다. 음운론적 단어와 통사론적 단어, 의미론적 단어 사이에 종종 괴리가 일어 날 수 있는데, ‘이다’가 바로 그런 경우라는 것이다. 즉, 통사론적으로는 하나의 단어인 ‘이’가 형태음소론적으로는 주사(host)인 선행어에 의존하여 하나의 단어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구개음화의 촉발자가 된다는 것이다.

엄정호(1993, 2000)처럼 층위에 따른 단어 사이의 괴리를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가 구개음화에 관여한다고 해서 접어라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문법적 기능을 지닌 어떤 요소들이 접어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뿐더러, 대체로 영어에서 접어로 분석되는 요소들인 ‘s’, ‘ve’ 등은 축약되지 않은 형태인 ‘is/has’, ‘have’ 등과 교체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이’에는 축약형이 없으며, 또한 생략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은 ‘이’가 접어라는 주장에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엄정호(1993, 2000)와는 달리 시정곤(1993, 1994, 1995)은 ‘이다’ 구문의 구개음화에 대해 분명한 이유를 제시한다. 시정곤(2006: 69)에 의하면, ‘이’가 독립용언이며 따라서 단어라면 (17가)에서 ‘발’과 ‘이’의 경계는 단어경계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17나, 다)에서와 같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나 구개음화가 일어나므로 ‘발이(다)’의 경계는 단어경계가 아닌 형태소 경계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다’ 구문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를 접사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진수(2002)의 구조에서는 모문의 술어인 ‘이다’와 내포절의 술어가 병합되어 하나의 술어를 형성한다는 것이니 (17가)에서 ‘발이다’는 분명 하나의 단어여야 하지만 ‘발’과 ‘이’ 사이에는 형태소 경계가 아닌 단어경계 아니면 절경계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개음화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인 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진수(2002)는 구개음화현상에 관해서는 시정곤(2006)이 제시한 세 번째 조건에 설명을 제시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엄정호(1993, 2000)에서와 같이, 층위 별 괴리가 존재한다면, 이진

수(2002)에서도 한 가지 가능성은 모색될 수 있을 듯하다. ‘이다’가 명제가 성립되어 있는 소설을 보충어로 택하는 서술어라는 사실로부터 ‘이다’의 의미를 ‘보충어절이 지니는 명제의 상태’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다’는 그 의미적 특성상 병합술어, 즉 선행어와 ‘이다’의 연쇄의 의미가 마치 내포절의 서술어만의 의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통사단계 이후인 인지단계(perception level)에서는 선행어와 ‘이다’가 의미상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어 선행어와 ‘이다’ 사이의 경계구성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음운단계에서 구개음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¹³⁾

살펴본 바와 같이, 시정곤(2006)은 구개음화와 관련하여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시하는 듯하지만, 구개음화현상과 관련하여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에는 형태소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형태소 경계가 있다는 사실이 ‘이다’가 접사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¹⁴⁾ 둘째, (17나)의 경우 ‘밭이랑’이 모든 한국어 화자들에게는 아니지만 [바치랑]으로도 발음된다는 것이다. 물론, [바치랑]으로 발음되는 것은 ‘밭’과 ‘이’의 활용형인 ‘-이랑’과의 결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필자에게는 /밭##이랑/인지 /밭+이랑/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외래어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어 화자들이 ‘라디오(radio)’, ‘라디에터(radiator)’, ‘센티미터’를 [라지오], [라지에타], [센치미터]로 발음하는데 이들은 단어로 형태소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실은, 필자의 관찰이 맞는 것이라면, 구개음화의 환경에 대한 논의이므로 ‘이다’가 접사라는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3) ‘이’를 형식동사로 보는 김의수(2002: 897)는 ‘이’가 의미적으로 공허한 요소이기 때문에 LF에서는 마치 접사처럼 기능한다고 하면서 ‘이’를 ‘의미적 접사’ 혹은 ‘LF-접사’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LF가 ‘인지단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김의수(2002)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가 의미가 없는 형식동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가 의미단계에서라도 분명 접사는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14) 시정곤(2006: 주9)도 이 점에 동감을 표하면서 구개음화현상이 ‘이’가 접사라는 증거가 아니라 접사로 볼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임을 밝힌다.

3.4 생략 가능성의 문제

‘이다’구문에서 ‘이’는 대체로 선행어가 자음으로 끝날 때는 생략되지 않지만 모음으로 끝날 때는 ‘이’가 수의적으로 생략될 수 있는 듯 보인다.

(18) 가. 철수가 청년이다.

나. *철수가 소년다.

(19) 가. 순이가 효녀이다.

나. 순이가 효녀다.

‘이’가 이처럼 수의적으로 생략될 수 있는 이유를 엄정호(2000: 335-6)는 ‘이다’가 고유한 의미역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다’의 의미가 비어 있는 기능동사이기 때문에 그 출현을 통사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곳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통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든가 의미상 필요한 곳에서는 모음 뒤라는 환경에서도 생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⁵⁾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먹어야(하)겠다’와 같이 ‘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엄정호(2000)에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19가)에서와 같이 선행어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거나, (20)에서와 같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의 생략이 음운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서정목(1993), 이승재(1994)) 것은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가 기능동사이기 때문에 생략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20) 가. 이것이 {소임음/*숨음} 알아야 한다.

나. 그것은 맛이 신 {포도이나/*포도나}, 먹을 수 있다.

이승재(1994)는 ‘이’의 ‘서술성 상실의 여부’와 ‘명사화 여부’가 ‘이’의 생략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임을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엄정호(2000)의 주장을 해석하면 (20)에서는 ‘이’가 생략되면 서술성이 상실되어 명사형어미 ‘-

15) ‘이다’가 용언, 즉 본동사라는 엄정호(1989)의 견해가 엄정호(2000)에서는 기능동사라는 견해로 바뀐 듯하다.

口'나 접속어미 '-나'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가 생략될 수 없다는 것일 것이다. '이'가 서술어임을 주장하는 필자에게는 합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가 기능동사라는 주장은 '이'의 의미가 비어있다는 가정에 근거하는 것인데 (그리고 '하'도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 '이'에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할 예들이 있다는 것이다(이건수(2002: 151-2), 이견수·박갑용(2006: 108) 참조).

(21) 가. 그것은 참 불행이다.

나. 그것은 참 불행하다.

서정수(1975: 63-4)는 '이'와 '하'는 의미가 없는 허형태소라서 '이/하'의 교체가 가능하여 (21)의 예들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의미가 없는 허형태소라면 '이'와 '하'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위의 예들에서는 어떤 것이 선택되든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는 탓에 문제가 없을 듯도 보인다. 그러나 (22)와 (23)의 예들은 그렇지 않다.

(22) 가. 철수가 (순이의 의견에) 찬성이었다.

나. 철수가 (순이의 의견에) 찬성하였다.

(23) 가. 철수가 이혼한다는 것은 참 불행이다.

나. *철수가 이혼하다는 것은 참 불행하다.

'이'가 선택된 (22가)는 상대적 의미를, '하'가 선택된 (22나)는 행동적 의미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두 문장의 의미적 차이는 '이'가 '상태성'의 의미를, '하'가 '행동성'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불행'의 경우는 (21)에서처럼 '이'와 '하'가 교체되기도 하고, (23)에서처럼 교체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¹⁶⁾ 이러한 사실은 '이'와 '하'의 교체에 의미적 제약이 존재하며, 그 제약은 '이'와 '하'의 의미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말해주는

16)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사실 [+상태성]의 '하'와 더불어 [-상태성]의 '하'도 함께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가 의미가 없는 기능동사라는 엄정호(2000)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면에, 시정곤(2006:71)은 용언과는 달리 격조사, 부사형 어미, 시제형태소 등은 선행어의 음운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선행어에 가시적인 접사들이라면서, ‘이’의 생략도 선행어의 음운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선행어에 가시적이므로 ‘이’는 접사이고 그래서 선행어의 음운적 환경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이’의 생략현상이 수의적이며, 이승재(1994)의 논의에서와 같이, 음운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시정곤(2006: 72-3)은 ‘이’의 생략이 필수적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초점은 ‘이’의 생략이 필수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 모든 구문에서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의적이든 국부적이든) 왜 ‘이’의 생략현상이 음운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가를 설명하여야 한다면, 용언어간이 (수의적이든 국부적이든) 선행어의 음운적 환경에 따라 생략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를 접사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또한 그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정곤(1993, 1994, 1995, 2006)에서 ‘이’가 생략될 수 있는 것은 ‘이’가 선행어에 음운적으로 가시적인 접사이기 때문이고, ‘이’가 접사여야 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다른 접사들과 같이 선행어에 음운적으로 가시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격표지, 부사형 어미, 시제형태소 등이 선행어의 음운환경으로부터 받는 음운적 영향은 ‘-이/-가’, ‘-아/-어’, ‘-었/-았/-쓰’과 같이 이형태의 교체현상일 뿐 생략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가 생략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가 접사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어간을 형성하는 접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것인지 더욱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따라서, 시정곤(1993, 1994, 1995)이 ‘이’의 생략문제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된다.

그러면 이권수(2002)는 어떤가? 위에서 논의한 바대로, ‘이다’는 서술어이므로 이승재(1994)에서와 서술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운적 환경이 만들어지면 생략될 수 있다는 ‘이’ 생략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근수(2002)는 시정곤(2006)의 네 번째 조건을 엄정호(1989), 시정곤(1993)보다 더 분명하게 만족시키는 설명력 있고 타당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술성이 상실될 경우 ‘이’의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다’가 서술어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3.5 ‘이다’와 ‘아니다’의 문제

‘이다’의 부정형은 ‘아니다’로 나타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부정문에서는 선행어에 주격표지 ‘이/가’가 부착될 수 있어 ‘이다’와는 달리 ‘아니다’가 독자적인 단어처럼 보인다.

(24) 가. *철수가 학생-이/가-이다.

나. 철수가 학생이 아니다.

다. 철수가 학자가 아니다.

‘아니다’를 부정부사 ‘아니’와 ‘이다’로 분석하면서 엄정호(1989, 1993)는 ‘이다’의 의존성이 ‘아니’로 충족되기 때문에 선행어에 주격표지가 부여될 수 있어 ‘아니다’가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면에, 시정곤(1993, 1994, 1995)은 ‘아니’를 [+NEG] 자질을 가진 명사로 상정하고 V, 즉 ‘이’에 핵부가되어 통사부에서 ‘아니다’로 기저생성된다고 가정하면서, 부정문에서는 핵 ‘학생’이 중간에 있는 ‘아니’라는 성분을 뛰어 넘어 이동하게 되면 핵이동제약을 어길 뿐더러 ‘아니다’는 [+FF] 자질을 가지므로 선행 핵을 유도할 수 없어 ‘학생’이 ‘아니다’로도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행 성분인 ‘학생’이 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다’의 부정문과 관련하여 시정곤(2006)이 제시한 기본조건은 긍정문(‘이다’)와 부정문(‘아니다’)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정호(1989, 1993)도 시정곤(1993, 1994, 1995)도 모두 ‘아니다’를 ‘이다’의 단형부정형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선행어에 주격표지가 부착될 수 있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으니, 일단은 시정곤(2006)의 기본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석이라 할 수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들의 분석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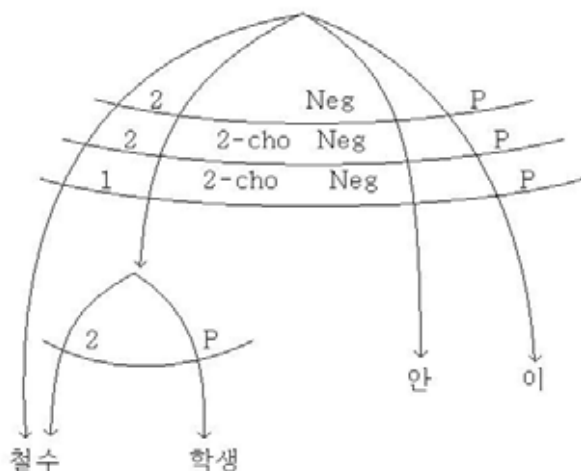
있다. ‘아니다’의 경우도 명사구 이외에 부사구, 형용사구 등이 선행어가 될 수 있다 (3.1 참조). 그렇다면, 3.1에서 엄정호(1989, 1993)와 시정곤(1993, 1994, 1995)의 문제점들로 논의한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니다’의 경우 선행어에 격표지가 부착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지며, 다른 구문들의 경우와는 달리 장형부정형은 더 부자연스러워진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까지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5) 가. ?철수가 학생 아니다.
- 나. ??철수가 학생이 아니지 않다.

이건수(2002: 175-6)는 ‘아니다’를 부정어 ‘안’과 ‘이다’로 보면서 ‘이다’의 부정문 구조를 (26)으로 제안한다.¹⁷⁾

(26)



17) ‘아니다’를 ‘안 이다’로 보려는 것은, ‘아니’와 ‘안’에 대한 통시적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철수가 안/아니 놀았다’와 ‘철수가 키가 안/아니 크다’ 등에서 ‘아니’는 고어적 느낌은 물론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도 들기 때문이다.

‘이다’가 최초의 층에서 소절인 [철수 학생]을 보충어로 택하지만 부정어 ‘안’ 때문에 절병합이 일어날 수 없어 ‘철수’만 모문의 목적어관계로 인상된 후 최종주어제약 때문에 최종의 주어관계로 승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긍정문의 경우에는 ‘이다’가 내포절 서술어의 의미에 다른 의미를 첨가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절병합을 야기하지만, 부정문에서는 부정어 ‘안’과 모문의 서술어인 ‘이다’의 의미가 ‘내포절의 내용의 부정’으로 분명해져 ‘이다’가 독자적인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병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부정문에서는 선행요소에 주격표지가 부착될 수 있으며, 부착되지 않으면 왜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이 되는가? 이건수(2002)에서의 대답은 ‘이/가’가 주격표지가 아니라 초점 또는 강조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단형 부정문에서는 서술어 앞자리는 초점 또는 강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서술어 ‘이다’의 부정형인 ‘아니다’의 앞자리도 초점 또는 강조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7)과 같은 대조구문이 그러함을 보여준다.

- (27) 가. 철수가 목사가 아니라 교수이다.
나. ??철수가 목사 아니라 교수이다.

(27)은 ‘교수’가 ‘목사’를 대상으로 대조되는 문장이다. 그런데 ‘아니라’ 앞에 주격표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단순 부정형의 경우보다 훨씬 더 부자연스러워진다. 그 이유는 대조의 대상이 초점 또는 강조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조구문에서 대조의 대상에 주격표지인 ‘이/가’가 부착될 수 있다는 것은 ‘이/가’가 주격이 아니라 초점 또는 강조의 기능을 지니는 표지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부정문에서 ‘아니다’의 선행요소에 부착된 주격표지 ‘-이/가’도 초점 또는 강조의 표지라는 것은 ‘이/가’가 초점 또는 강조를 나타내는 다른 표지들로 자유롭게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¹⁸⁾

- (28) 철수가 학생-은/도/만/조차(도) 아니다.

18) 실제 발화에서 ‘아니다’의 선행요소에 부착되는 표지가 강하게 발음된다는 사실 또한 ‘아니다’의 앞자리가 초점 또는 강조의 자리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다’의 장형부정형은 왜 부자연스러운가? 이견수(2002)의 분석에서 장형부정문은 ‘이다’의 긍정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다’와 내포절 사이에 절병합이 먼저 일어난 후 ‘-지 않다’가 첨가됨으로써 형성된다. 단형 부정문에서 부정어의 영향범위는 서술어구에 한정되지만, 장형부정문의 경우에는 서술어 뒤에 ‘-지 않다’가 붙어 문장 전체가 부정의 영향범위가 된다. 하지만, 명제적 내용이나 사실을 보충어로 택하는 ‘이다’는 의미적 특성상 보충어의 내용에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탓에 ‘안’이 ‘이다’의 앞에 위치하는 것만으로도 보충어, 즉 내포절의 명제적 내용이나 사실을 부정하게 되어 서술어구를 넘어 문장 전체에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다’의 장형부정형은 의미적으로 잉여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다’도 통사적으로는 여타의 서술어들과 마찬가지로 두 유형의 부정문을 모두 허용하지만, ‘이다’의 의미적 속성상 장형 부정형의 의미와 단형부정형의 의미가 같기 때문에 구성이 복잡한 장형부정형의 사용이 꺼려진다는 것이다. ‘이다’의 장형부정문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받아들이는 화자들도 많다는 사실이 ‘이다’도 여타의 서술어들과 동일하게 두 가지 부정형을 모두 허용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한 바와 같이, 이견수(2002)는 ‘이다’와 ‘아니다’를 동시에 설명함은 물론 부정문에서의 격표지 출현과 더불어 엄정호(1989, 1993), 시정곤(1993, 1994, 1995)에서는 논의되지도 못한 격표지의 성격과 단형부정형과 이중부정형과의 문제까지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정곤(2002)에서의 ‘아니다’ 구문에 대한 기본조건은 분석의 설명력과 타당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조건이라 해야 할 것이다.

3.6 ‘이’, ‘답’, ‘같’의 문제

시정곤(1993, 1994, 1995)에서 ‘이다’를 통사적 접사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29)에서와 같이 ‘이다’ 구문이 ‘답다, 같다’ 등의 구문과 같은 문법적 현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시정곤(2006)은 ‘이, 답, 같’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이다’ 구문에 대한 분석이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으

로 제시한다.

- (29) 가. 철수가 [착한 학생]이다.
- 나. 철수가 [착한 학생]답다/같다.

하치근(1996)과 최기용(2001)은 ‘이다’와 ‘답다’가 보이는 부정의 양상이 (30)에서와 같이 다름을 들어 이들을 한데 묶어 처리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 (30) 가. 철수가 학생답다.
- 나. *철수가 학생 {안답다/안같다}.
- 다. 철수가 학생{답지/같지} 않다.

즉, ‘이다’는 단형부정과 (화용상의 이유로 다소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장형부정형을 모두 허용하는데 반해 ‘답다’와 ‘같다’는 장형부정형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정곤(2006: 75)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과연 이 차이 정도가 이들을 서로 다른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냐의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작 핵심은 이들을 한 범주에 묶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보다는 공통점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함을 주장한다.

물론 통사적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한 구문과 다른 구문과 간과할 수 없을 만큼 공통된 현상을 보인다면, 분명 같은 구조에 입각하여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시정곤(2000)의 주장처럼 ‘이다’ 구문과 ‘답다, 같다’ 구문들이 한 범주로 묶어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통점을 보이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답다’와 ‘같다’는 선행어에 관형어가 함께 쓰일 수 있는 것과 선행어와의 사이에 격표지가 끼어 들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정문의 형성을 비롯하여 여러 측면에서 ‘이다’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 (31) 가. *철수가 학생은/만/도/조차{답/같}다.
- 나. 철수가 학생*{(답/같)}다.

- 다. *철수가 매우 적극적이다.
- 다. 철수가 합격한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이/*답/*?같}다.
- 라. 철수가 떠난 지가 오래{이/*답/*?같}다.
- 다. 범인이 잡힌 것은 지하철역에서{이/*답/*?같}다.

‘답다, 같다’는 ‘이다’와는 달리 선행어와의 사이에 한정적 의미의 몇몇 특수격표지들이 끼어들 수 없으며, 수의적으로 생략될 수도 없을뿐더러, 선행어의 선택에도 제약이 엄격하여 오직 명사(명사구?)만을 여기로 택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다’를 ‘답다’와 ‘같다’의 행태와 동일한 구조와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시정곤(2006)이 제시한 ‘이다’ 구문과 같은 문법적 양상을 보이는 ‘답다, 같다’ 구문을 아울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조건은 ‘이다’ 구문에 대한 분석이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4. 기타 문제들

3장에서는 ‘이다’가 소절을 보충어로 택하는 비대격 서술어라는 가정의 이견수(2002)가 ‘이다’를 용언이라 가정하는 엄정호(1989, 1993)와 ‘이다’를 통사적 접사라고 가정하는 시정곤(1993, 1994, 1995)보다도 시정곤(2006)이 제시한 기본조건들을 더 충실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분석임을 논의하였다. 본장에서는 ‘이다’가 지니는 서술어적 특성, 즉 동사로서의 특성과 비대격적 특성을 보이고, ‘이다’와 상대성 ‘하다’가 공동의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4.1 ‘이다’의 서술성과 비대격성

한국어에서 동사와 같은 서술어는 앞에 부정어 ‘안’이 오거나 서술어 뒤에 ‘지 않다’가 덧붙여져 부정형이 되고, 시제표지가 부착될 수 있으며, 주어의 유형에 따라 존칭어미가 부착될 수 있으며, 문장의 유형에 따라 서술형, 의문

형, 조건형 등의 어미변화를 보이며, 보문자(complementizer) ‘-ㅁ/-음’ 또는 ‘-기’가 부착될 수 있으며, 관형형 어미 ‘-ㄴ/-는’이 부착되어 관계절을 형성할 수 있는 통사적 특성을 보인다. 그런데 ‘이다’도 이러한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 (32) 가. 철수가 학생-이-였/-있-였/-ㄹ-것이다.
 나. 아버지가 선생님-이-시-다/*선생님-이다.
 나. *철수가 학생-이-시-다.
 다. 철수가 학생-이다/이니/이(라)면. . .
 라. 철수가 학생이 아니다 (= 안 이다).
 라. 철수가 학생이지 않다.
 마. 사람들이 철수가 학생-이-ㅁ-을 몰랐다.
 마. 철수가 학생-이-기 쉽다.
 바. 학생이-ㄴ 소년

물론, 시정곤(1993, 1994, 1995)에서도 선행어가 핵이동하여 ‘이다’와 동사를 형성하므로 ‘이다’가 보여주는 통사적 특성을 남김없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예를 들어, 존칭어미 ‘시’는 동사의 어간에 직접 부착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접사 ‘이’가, 그것도 핵이동을 동반해야 하는 통사적 절차를 거쳐 통사단계에서, 선행어를 동사로 전성시킨 다음에 바로 그 ‘이’에 존칭어미가 부착된다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동사어간인 ‘이’에 존칭어미가 부착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설명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논항을 하나만 택하는 자동사 중 논항으로 주어를 택하는가 보충어를 택하는가에 따라 비능격 동사(unergative verb)와 비대격 동사(unaccusative verb)로 하위구분되는데, Perlmutter & Postal(1984: 97-100)은 비능격성과 비대격성은 해당 동사의 의미에 의해 범언어적으로 결정된다면서(Universal Alignment Hypothesis), 의지적이거나 자발적인 행동(willed or volitional act)을 나타내는 동사는 비능격 동사에, 상태성을 나타내는 동사는 비대격 동사에 속한다고 한다. 그런데 (33)의 예들은 ‘이다’가 의지적 또는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상태성을 나타내는 서술어임을 보여준다.

- (33) 가. 철수가 순이의 의견에 찬성이었다.
- 나. 철수가 순이의 의견에 찬성하였다.

(33가)는 ‘철수의 입장 또는 상태’를 나타내지만, (33나)는 ‘철수의 행동’을 나타내므로 비대격 동사라고 가정할 수 있다. Kim(1990)이 제시한 비대격 동사의 점검기준에 의하면, 행위자적인 특질(agentivity)을 지니지 못하는 비대격 동사는 비능격 서술어와는 달리 명령문과 청유문을 형성하지 못하며, ‘노력하다’(try)류 동사와 ‘강요하다’(force)류 동사의 내포질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다’는 행위자적인 특질에 민감한 통사과정과는 무관하므로 비대격 동사로 가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대격 동사로 가정할 때 지금까지 논의한 ‘이다’ 구문이 보여주는 통사적 특성은 물론 (34)와 같은 통사적 현상 까지도 남김없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4) 가. *(철수야) 학생이여라.
- 나. *(철수야) 학생이자.
- 다. *철수가 학생이려고 노력한다.
- 라. *순이가 철수에게 학생이도록 강요한다.

4.2 상태성 ‘하다’ 구문과의 공통점

상태성 ‘하다’는 대체로 비실체성 명사와 결합하여 문장을 형성한다.

- (35) 철수가 정직하였다.

선행어와 ‘하다’의 연쇄인 ‘정직하다’가 단일의미를 지넘은 물론 하나의 단어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다’의 경우에서와 같이 ‘정말로’와 같은 부사어가 ‘정직하다’ 앞에는 나타날 수 있지만 ‘정직’과 ‘이다’ 사이에는 끼어들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정직하다’는 시제, 존칭법, 관형절 형성 등에 있어 독립적인 서술어들과 마찬가지로 한 단어처럼 행동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이다’의 경우와 같다.

- (36) 가. 철수가 정말로 정직하다.
나. *철수가 정직 정말로 하다.
(37) 가. 철수가 정직하였었다.
나. 선생님께서 정직하시다.
다. 정직한 학생

선행어와 ‘하다’ 사이에 격표지가 끼어들 수 없음도 ‘이다’의 경우와 같지만 특수격 표지와 부정문 형성과 관련하여서는 ‘이다’와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 (38) 가. *철수가 정직-이/을-하다.
나. 철수가 정직-은/도/만/마저/조차/까지 하였다.
(39) 가. *철수가 정직 안 하다.
나. 철수가 정직하지 않다.
다. ?철수가 안 정직하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상대성 ‘하다’는 안타깝게도 동작성 ‘하다’의 위세에 눌려 동작성 ‘하다’에 대한 논의의 일부로서 동작성 ‘하다’와 함께 접미사, 형식동사, 본동사, 경동사, 통사적 접미사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되어왔으나, 이진수·박갑용(2006)은 상대성 ‘하다’를 소절을 보충어로 택하는 비대격 서술어라 제안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살펴본 바와 같이, ‘이다’와 ‘하다’ 사이의 공통적 특성은 시정곤(1993, 1994, 1995)에서 관찰된 ‘이다’와 ‘답다, 같다’ 사이의 공통적 특성 보다 훨씬 더 커 공통의 구조와 방법으로 설명을 시도할 가치가 충분히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다’와 상대성 ‘하다’가 보이는 공통적 특성과 차이점의 원인의 규명은 다음 논문의 과제로 묶어 두고자 한다.

5. 끝맺기

본고에서는 시정곤(2006)에서 ‘이다’ 구문에 대한 분석이 갖추어야 할 기

본조건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기준 삼아 그간 제안된 분석들 중 엄정호(1989, 1993, 2000)와 시정곤(1993, 1994, 1995)을 이견수(2002)와 비교하여 ‘이다’를 일반적인 의미의 동사로 보거나 통사적 접사로 보는 것보다는 비대격 서술어로 볼 때 구개음화 문제는 제외한 ‘이다’ 구문의 특이성은 물론 ‘이다’와 관련된 현상들을 보다 더 타당성 있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이다’가 접사가 아님을 보이는데 주력하였으며 덧붙여 ‘이다’를 ‘답다’와 ‘같다’와 함께 묶어 설명하는 것은 무리임도 보였다.

한편으로는, ‘이다’ 구문의 분석들이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이다’의 선행 요소의 범주가 명사라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며, ‘이다’ 구문에 대한 분석은 ‘이다’의 범주 규정이나 선행어와 ‘이다’의 문법적 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으로만 그친다면 타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것도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은 문법정보가 접미사의 형태로 서술어에 집중적으로 부착되는 교착어이면서, 주어+목적어+동사의 어순을 갖는 동시에 서술어가 항상 마지막 자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엄격한 제약을 지니는 한국어에서는 ‘이다’와 같이 뚜렷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서술어가 복합문을 형성할 때는 형태론적 문제와 통사론적 문제가 혼합되어 특이한 행태를 보이게 된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다’ 구문은 물론 내포절의 서술어와 모문의 서술어가 연쇄를 이루게 되는 구문들의 분석에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어적 특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다’가 소절을 보충어로 택하고 절병합 현상을 야기하는 독자적인 비대격 서술어라고 가정함으로써 ‘이다’는 물론 ‘철수가 정직하다’와 같은 문장을 형성하는 상태성 ‘하다’도 함께 묶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보였다.

❖ 참 고 문 헌

- 김의수 (2002) “‘이다’ 재론,” 『형태론』4.2:349-356.
- 김의수 (2003) 『국어의 격과 의미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남기심 (1986) “‘-이다’ 구문의 통사적 분석,” 『한글연구』7. 연세대.
- 남길임 (2004) 『현대국어 ‘이다’ 구문연구』 한국문화사.
- 서정목 (1993) “계사구문과 그 부정부문의 통사구조에 대하여,”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 연구』 문학과지성사. 488-506.
- 서정수 (1975) 『동사 “하-”의 문법』 서울: 형설출판사.
- 시정곤 (1992) “통사론의 형태정보와 핵이동,” 『국어학』22:299-324.
- 시정곤 (1993) “‘-이다’의 ‘-이-’가 접사인 몇 가지 이유,” 『주시경학보』11:143-149.
- 시정곤 (1994)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국학자료원.
- 시정곤 (1995) “핵이동과 ‘-이/답/히/갈-’의 형태통사론,” 『생성문법연구』5.2: 419- 456.
- 시정곤 (2006) “‘이다’ 구문과 통사적 접사설을 다시 논의함,” 『한국어학』28:55-80.
- 양정석 (2001) “‘이다’의 문법범주와 의미,” 『국어학』37:337-366.
- 엄정호 (1989) “소위 지정사 구문의 통사구조,” 『국어학』18:110-130.
- 엄정호 (1993) “‘이다’의 범주 규정,” 『국어국문학』110:317-331.
- 엄정호 (2000) “‘-이다’의 ‘이’는 조사인가?” 『형태론』2.2:333-342.
- 이건수 (2002) “‘이다’ 구문의 구조와 특성,” 『비교문화연구』5:149-180. 경희대학교 부설 비교문화연구소.
- 이건수·박갑용 (2006) “상태성 ‘하다’ 구문에 대한 소고,” 『언어과학연구』39:97-124.
- 이선웅 (2000) “현대국어 ‘(-)이-’의 품사 분류와 자릿수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국어학논집』(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 도서출판 역락 71-92.
- 이승재 (1994) “‘-이-’의 삭제와 생략,” 『주시경학보』13:14-28.
- 최규수 (2003) “한국어 통어적 가치에 대한 몇 가지 문제,” 『한민족문화』2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77-214.
- 최현배 (1937) 『우리말본』 정음사.
- 최기용 (2001) “‘-이다’의 ‘-이-’는 주격 조사이다,” 『형태론』3.1:101-112.
- 하치근 (1996) “국어 통사적 접사의 수용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한글』231
- Aissen, J. and D. Perlmutter (1983) “Clause Reduction in Spanish,” in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1*, edited by D. Perlmutt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60-403.
- Brown, E. and H. Miller (1980) *Syntax: A Linguistic Introduction to Sentence*

Structure. London: Hutchinson.

Oh. M. (1991) ‘The Korean Copula and Palatalization,’ *Language Research* 27.4:701-724.

Perlmutter, D. and P. Postal (1983) “The Relational Succession Law,” in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1, edited by D. Perlmutt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0-80.

Perlmutter, D. and P. Postal (1984) “The 1-Advancement Exclusiveness law,” in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2, edited by D. Perlmutter and C. Rose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81-125.

❖ ABSTRACT

Is *ita* a Syntactic Affix?

Keon Soo Lee

Based on the required criteria for an analysis of *ita* construction suggested in Si (2006), this paper aims to show that the seemingly paradoxical properties of *ita* construction can be accounted for more adequately under the hypothesis that *ita* is an unaccusative verb which takes a small clause as its complement (Lee (2002)) than under the hypotheses that *ita* is a simple verb (Um (1989, 1993)) or that *ita* is a syntactic affix (Si (1993, 1994, 1995)). Arguments are concentrated on falsifying the widely spread assumption that the word preceding *ita* is a noun or a noun phrase. And this paper also suggests that the idiosyncratic properties of the stative *hata* construction can be easily explicated under the hypothesis that stative *hata* is also an unaccusative verb which takes a small clause its complement.

Key Words

ita, *ita* construction, unaccusative verb, clause union, syntactic affix
stative *hata*, stative *hata* construction

논문접수일: 2008. 10. 28.

심사완료일: 2008. 11. 22.

게재확정일: 2008. 12. 10.